

스노우보드 불자스타 육성

불교계가 나섰다

자신과의 싸움이 반복되는 극한 스포츠(Extrem sports)인 스노우보드(Snowboard). 스노우보드 경기는 동계올림픽의 꽃이지만 국내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선수 층도 얇은 것이 사실이다.

스노우보드대회에서는 해외 프로선수인 일본인 유지로씨를 초청해 시범시간도 갖는다. 달마배 오픈 스노우보드 챔피언십 대회는 양평 상원사 주지 호산스님이 기획하고 추진하자 뜻에 동감하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비롯 20여 스님들이 심시일반으로 대회 개최비용

20여 스님 '달마배 대회'로 훈련비 지원 3일 지산 리조트서 개최, 해외프로 시범

이고, 쏘나무 불자선수 발급을 위한 스노우보드 대회가 강원·경기 북부 지역 사찰들의 지원으로 개최된다. 2월 3일 오전 8시30분부터 국제적인 규모와 최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달마배 오픈 스노우보드 챔피언십 대회에는 하프파이프(Halfpipe) 부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대부분인 1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입상선수 17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훈련보조금이 지급되는 달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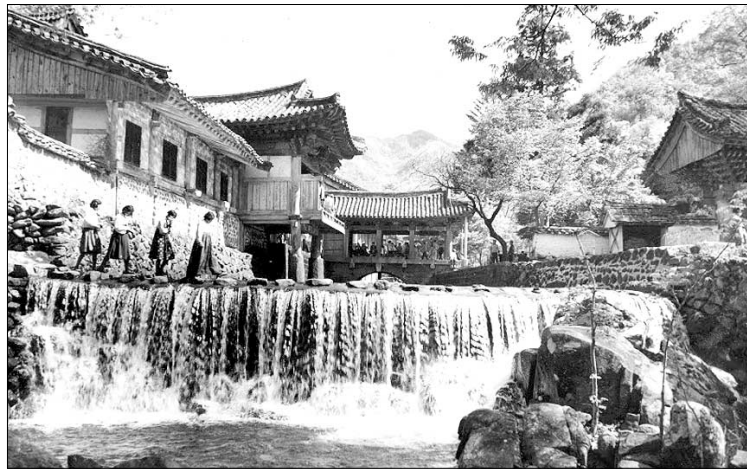
과 훈련지원비까지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불자 스노우보드 쏘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정기대회를 통한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저변 확대, 쏘나무 발굴 및 육성, 향후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보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원 건립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www.dalma-open.com 김원우 기자



스노우보드란

스노우보드는 한 개의 데크(판)와 폴로 구성돼 있다. 스키와 함께 겨울스포츠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는 스노우보드는 스피드 있는 활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중동작과 기술들을 펼칠 수 있어 매년 동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스노우보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젊은층들만 즐겼으나 이제는 폭 넓은 연령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인구비율이 64 정도로 성장했다. 동계올림픽 종목이지만 한국에는 선수가 100여명에 불과하다.

송광사 옛 모습을 찾습니다



1950년대 말의 송광사 임경당, 삼청각, 우회교 모습.

송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가 근현대 사진을 통해 '사찰 생활사 찾기'에 나섰다. 송광사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송광사 관련 사진을 대상으로 '송광사, 옛날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1월 27일부터 사진공모에 들어갔다. 송광사 사진공모는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 사진작가, 관공

서 등 개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송광사 관련 사진들을 한자 리에 모아 옛 사찰의 생활사를 한눈에 보고 사료로 영구 보관한다는 것. 이를 위해 송광사는 4월말까지 송광사 관련 사진을 공모하고 5월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성보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국내 처음으로 사찰관련 사진을 공모하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잊혀져 가는 송광사 옛 생활사를 사진을 통해

일반인 소장 사진 공모전 열여 가치있는 자료 CD제작 보급

찾아내고 가람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개인사진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송광사관련 사진을 보내주면 많은 사람이 공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광사 옛사진은 2000년 이전 송광사 관련 사진으로 사진촬영, 전각, 행사, 스님 등 모든 사진까지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온라인 접수는 jpg, tif 파일로 가로 2400pixel 이상) 송광사는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여 행이나 소풍에서 촬영한 개인 사진 가운데 사료가치가 있는 사진이 다수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사는 사료가치가 높은 사진을 골라 5월 14일 시상하며 전시와 함께 사진도록, CD타이틀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준영 기자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제



한마음선원이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 본원을 비롯 부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에서 갑신년 새해맞이 촛불제(사진)를 봉행했다. 촛불제는 부처님께 새해예배를 모시며,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한해 무사고 기원, 이웃에 대한 마음의 불씨를 촛불로 환히 밝히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법회에서 "마음의 불을 밝히라"고 법문했다. 김은경 기자

원주사암련 신년하례 법회



원주사암련합회(회장 원행)는 1월 16일 지약취폐에서 가운데 조국통일 국대민안 사회안정 국민화합 원주발전기원 신년하례법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봉(광덕사 주지) 경혜(성문사 주지) 일휴(약수암 주지) 스님과 김기열 원주시장, 이강부 원주시의회 의장, 안정신 원주상공회의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만나 마음 농사 지어요"

수원 봉녕사 원력화 보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 왔습니다. 올해 60살이 된 원력화 보살(김명선)은 담담하게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속된 표현으로 짝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22살에 시집을 와 기독교인인 시어머니 밑에서 절에도 갈 수 없었다.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했지만 원력화 보살의 발은 집과 논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다. 시어머니가 원력화 보살을 개종시키고자 밤낮 교회에 나가고, 심지어 교회교인들을 집에 데려와 함께 구역예배를 볼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원력화 보살은 입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놓지 않았다. 스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지금은 27살인 막내딸이 3살 되던 해, 나 이 어린 시누이 소풍의 보호자로 따라갔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봉녕사다. 절에 가니 너무 좋았다. 법당 안에서 절을 올리는 것도,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는 것도 좋았다. 그때부터 기초교리도 배우며 본격적으로 신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인 시어머니를 부처님 품으로 이끌었다.



시어머니 개종 권유에도 염불전념 청소년·김장 사찰 모던일 불심 가득

"16살때였다. 아버지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사찰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셨지요. 스님이 되겠다고. 하지만 이렇듯 속세와 인연을 끊지는 못했네요." 그 사연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비록 스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원력화 보살에게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지탱해주던 힘이었고, 또한 인자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로 한 해 한 해를 보내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몸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못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사찰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밭씨 25여년전 이야기네요. (웃음)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지라 여기 승가대에서 공부하는 학인스님들 싱싱한 음식 드시고 수확 열심히 하시라구 채소 조금 가꾸는 것 밖에..." 말과는 달리 원력화 보살은 몸이 두꺼웠다 할 정도로 바쁘다. 사찰의 일이러면 굶은 일도 마다않고 두 팔을 걷고 나서기 때문이다. 청소년 김장, 농사 등 원력화 보살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다. 요즘은 손발의 관절염 때문에 들것조차 마음대로 집지 못하지만 그래도 밭갈이만은 늘 부처님전을 향한다. 그리고 밭씨부터 봄 농사 걱정이다.

"절은 플라요. 그냥 내가 싫은 일은 남들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한다는 것 밖에..." 수줍게 이야기하는 원력화 보살의 모습은 저절로 '보리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수원=김은경 기자



추천의말

묘엄스님 봉녕사 승가대학장

학인스님들의 든든한 벗

원력화 보살은 '봉녕사의 농림부장관'입니다. 120명이 넘는 스님들을 위해 배추며 고추, 호박, 가지 등 온갖 채소를 정성껏 가꾸고 사찰의 어려운 일에는 언제나 앞장 서 돕습니다. 덕분에 봉녕사의 학인스님들은 마

음 놓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지요. 원력화 보살은 상 내지 않고 행하시는, 신도들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또한 봉녕사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봉녕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살입니다.

釋經寺

비법 공개!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첫째: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제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셋째: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넷째: 기도와 화합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 천도재, 49재, 점안, 바라춤, 경전, 태경, 복지는법

시련

대령

관속

신중작법

상단권공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상점안

- 1. 복청계
- 2. 천수바라
- 3. 도량계
- 4. 거불
- 5. 헌좌계
- 6. 다계
- 7. 향수나열
- 8. 사다라니바라
- 9. 가지계
- 10. 하정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釋經寺 三學 佛敎大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대학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출강·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1. 모집과정: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간: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2004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화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